

##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 12월)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 12월)로 대림절부터 연말까지 마음을 붙드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12월은 기다림과 기쁨이 함께 오고, 한 해의 끝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래 기도문은 예배 대표기도로도, 가정과 개인 기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짧게 따라 읽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상황에 맞게 단어만 바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문장을 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br>

---

###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 12월)1 대림절 기다림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25:4)

---

주님, 12월의 시작에서 제 마음을 먼저 주님께 돌리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이 단지 달력의 기간이 아니라, 제 삶이 주님을 향해 정돈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는 바쁘고, 마음은 쉽게 조금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평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가장 선하다는 믿음으로 제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다리는 것들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제가 해야 할 몫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되, 제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기다림의 끝이 허무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 12월)2 성탄절 예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11)

---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한 이야기처럼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새롭게 흔들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화려한 빛으로 성탄을 꾸미지만, 정작 제 마음은 건조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도 생각은 흩어지고, 감격은 쉽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낮아지심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품게 하시고, 내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작은 친절과 실제적인 도움으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성탄을 기념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외로움 속에 있는 이웃, 갈 곳 없는 마음, 아픈 몸을 가진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 성탄이 제게 “주님이 오셨다”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 12월)3 연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럼에도 저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쁘고 편한 날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에 멈추게하시고, 울고 싶던 날에도 하루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 예상치 못한 도움, 작은 일상 속 웃음까지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하시고, 주님이 주신 배움과 깨달음을 붙잡게 하소서. 실패처럼 보였던 자리에서도 주님은 제 교만을 깎으시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우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손에 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가족, 교회, 친구, 일터의 동료들, 오늘도 숨 쉬며 살게 하신 건강과 평안이 모두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가 제 입술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내일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 12월)4 송구영신 새출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19)

---

주님, 해가 바뀌는 문턱에서 제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의 후회와 죄책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로 상처 준 일, 사랑을 미뤘던 일, 믿음 없이 선택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정죄하기보다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습니다. 다가오는 날들 속에서도 제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소서.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주님 가까이”를 구하게하시고, 큰 성공보다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매일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정돈되게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변함없다”는 진리를 기억하게하시고,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붙들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새해의 첫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 12월)5 겨울 건강과 마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4)

---

하나님, 추워진 날씨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피곤이 쌓이고 감정이 예민해질 때, 제 상태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져오게 하소서. 주님은 제 연약함을 아시며, 저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몸을 지켜 주옵소서. 무리한 일정과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휴식과 절제를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소망이 자라게 하소서. 또한 주님, 겨울이면 더 깊어지는 외로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이 공허할 때,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실제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비교와 자책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생각을 끊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진리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누군가의 온기가 되게 하소서. 작은 안부 전화, 짧은 메시지, 따뜻한 기도로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보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 12월)6 가정 모임과 화평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18)

---

주님, 연말이 되면 가족을 만날 일이 많아지고, 반가움과 함께 긴장도 찾아옵니다. 마음에 쌓인 말들이 튀어나올까 두렵고,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까 걱정됩니다. 주님, 가정의 자리에 주님의 화평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로 이기기보다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상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되, 판단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주님이 먼저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다 더 어긋났던 관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겸손히 다가갈 용기를 주시고,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풀리게 하소서. 가정 안에 믿음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식탁에서 감사가 자라게 하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가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소서. 주님,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 12월)7 예배 대표기도 마무리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자라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지체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갈등과 상처가 깊어진 자리마다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무거운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숨을 쉬게 하옵소서. 우리가 불평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탄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시고, 작은 섬김이 모여 주님의 사랑이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의 삶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